

31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

- 노동 가치설이든 효용 가치설이든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가 적정하게 결정된다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일어났을 리가 없다. 사물의 가치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되거나, 반대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기 때문에 사회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.

-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능력과 니즈를 연결하는 사회적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진 시대에 이 일대일의 관계성은 정말 유지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?

- 만약 자신의 능력이나 감성에 대해 희소성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, 그 사람에게 가격표도 붙이지 않은 채 증여하고 답례로 약간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?

그러한 증여와 감사의 교환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증여한 사람에게 매우 건전한 만족감과 자기효력감을 가져다줄 것이다. 생각만 해도 무척 가슴이 설렌다.